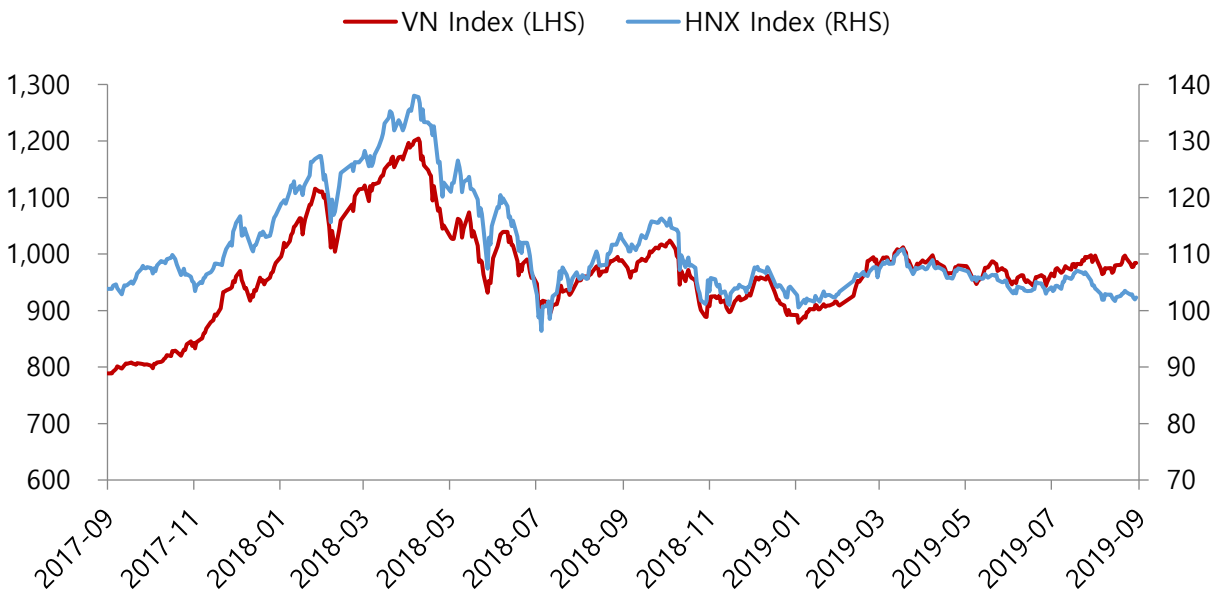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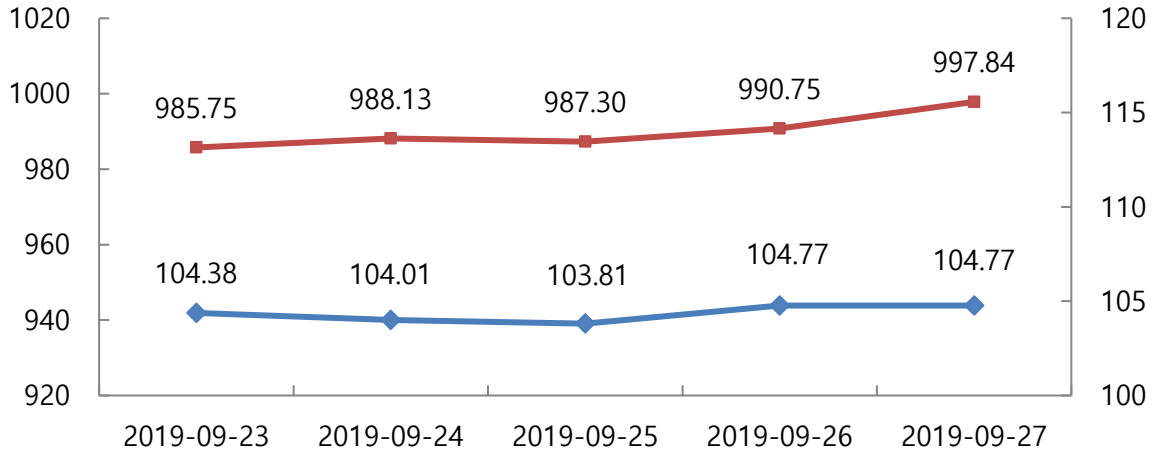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VN지수는 23일 전 영업일 대비 4.61포인트(0.47%) 하락한 985.75를 기록하며 또다시 99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6일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7일에는 전일 대비 7.09포인트(0.72%) 급등한 997.84로 장을 마감하여 1000선 회복의 움직임을 드러냈다. HNX 지수는 9 영업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24일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어 25일에는 전일 대비 0.20포인트(0.19%) 하락한 103.81로 장을 마감했다. 26일은 전일 대비 0.96포인트(0.92%) 급등한 104.77로 장을 마감하였고, 27일은 등락을 거듭하다 전날의 기록을 유지했다.

■ 개별 기업 뉴스

○ VinID, 전자지갑 서비스 운영허가 획득

빈그룹의 로열티 프로그램 VinID가 전자지갑 서비스 운영을 허가 받아 빈 그룹의 비현금 지불 서비스 시장 진출에 힘을 더하고 있다. VinID는 지난해 5월 현지 지불업체 People Care Jsc를 인수하며 전자 지갑 Monpay를 보유하게 되었고, 지난해 말 이후로는 경영진을 자사의 임원으로 교체했다. 빈 그룹은 작년 7월 3조 동(1억2940만 달러)의 정관 자본으로 VinID를 설립하였고, Vin ID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VinID 페이에 발급된 라이선스는 베트남 중앙 은행이 결제 중개 업체에 발급한 31개의 인증 중 하나이다.

○ FPT, 첫 8개월동안 이익 28% 증가

베트남 IT 거대 기업 FPT가 올해 첫 8개월동안 17조 동(7억 2600만 달러)의 매출과 약 3조 동의 세전 이익을 보고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28% 증가한 수준이다. 8월에는 매출 및 세전 이익이 각각 2조 3000억 동, 4540억 동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7%, 30% 이상 증가했다. 첫 8개월 동안의 세후 이익은 2조 5000억 동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EPS(주당순이익)는 2,961동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첫 8개월 동안의 이익률 역시 17.6%로 전년 동기의 16.6%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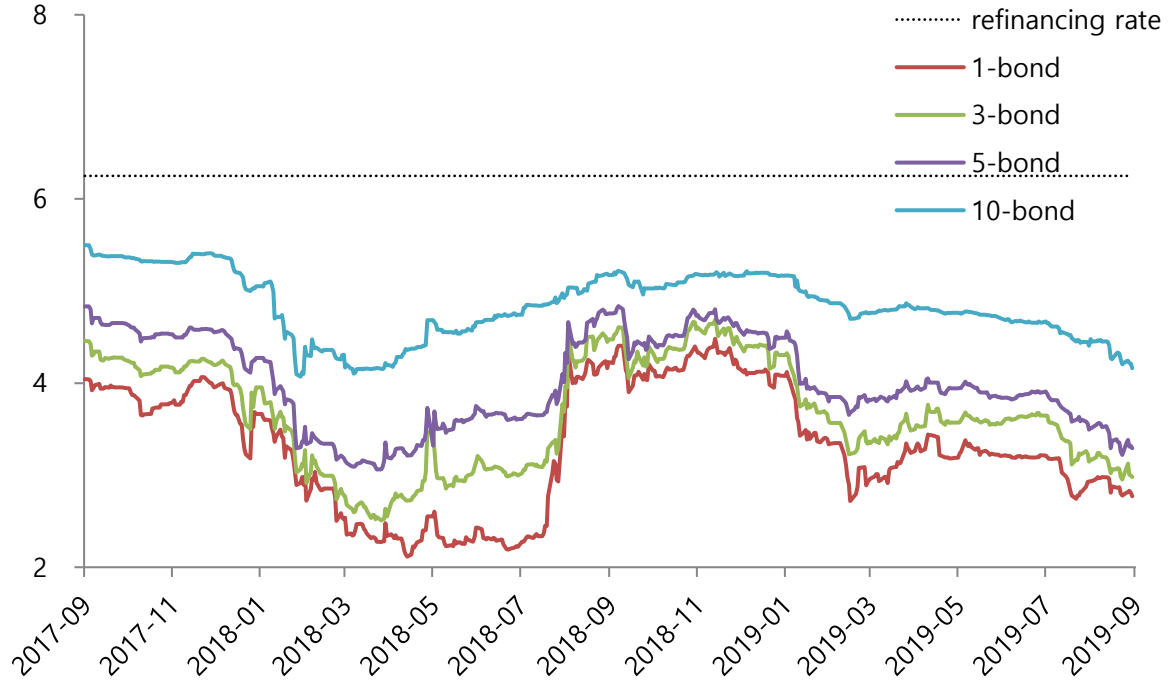
2. 주요 경제 동향

■ ADB: 베트남 경제, 외부 충격에도 불구 여전히 탄력적

베트남 경제가 대외 환경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밝혔다. ADB의 한 관계자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 따라 세계 무역이 침체되면서 수출 성장세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내수의 강세 및 지속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으로 베트남 경제는 건재하다"고 밝혔다. ADV는 기존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3.5%에서 3%로, 내년 3.8%에서 3.5%로 수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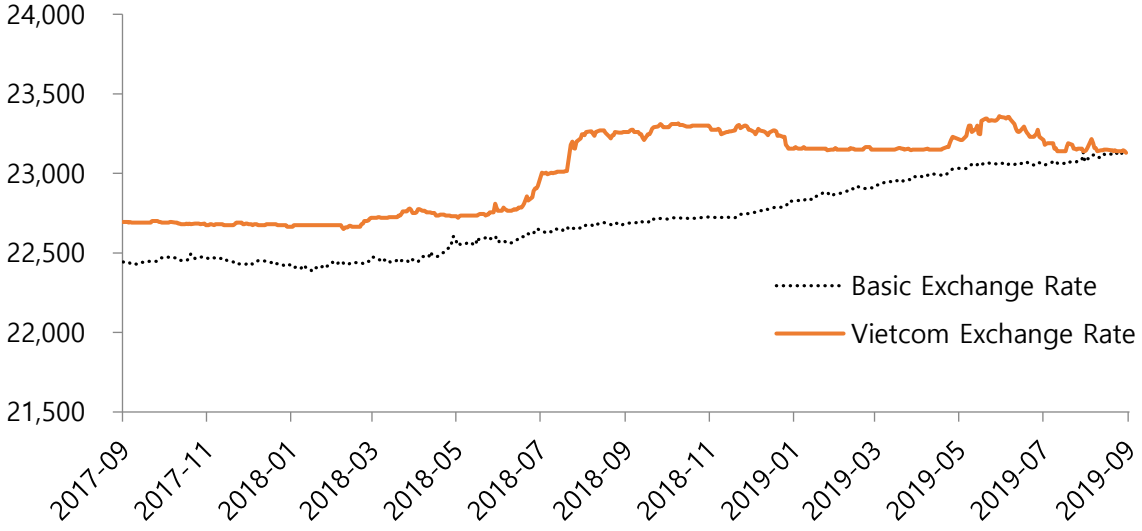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9-09-27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3,140	23,140	23,260



■ 베트남 국제 회사채 판매 부진

베트남 기업들은 올해 국제 시장에서 17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제시했지만 그 중 3억 달러만 판매되었다. 하노이증권거래소(HNX)에 따르면, 올해 첫 8개월동안 기업들은 5개의 각기 다른 국제 채권 발행을 등록했지만 오직 VPBank만이 올해 7월 아시아 및 유럽 투자자들에게 3억 달러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할 수 있었다. 한 경제학자는 "베트남의 낮은 국가 신용등급으로 인해 베트남 회사채는 항상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높은 금리로 발행해야만 했다. 기업이 운영중인 국가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없는 일반 규정으로 인해, 설령 운영국보다 신용 위험도가 더 낮더라도 베트남 기업들은 국제 채권 발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 베트남, 10 년동안 국채 금리 급감

지난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발행된 국채 금리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국가 예산 수 조 동을 절약하고 거시경제 조절 및 안정화에 기여했다. 국채 시장은 지난 10년동안 규모 면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어내어 국가 예산의 효과적인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국채 평균 연간 금리는 모든 만기에 대해 매년 4-6%씩 감소해왔다. 특히 5년만기 국채는 2009년 10.49%에서 2019년 3.55%로 크게 감소했고, 10년 만기 국채는 2009년 9.7%에서 2019년 4.35%로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시장 법적 프레임워크가 끊임없이 발전해옴과 함께, 국채 시장은 1차 및 2 차 시장 모두에서 새로운 상품을 환영하고 시장의 다양한 투자 요구를 충족시켜 왔다. 2013년, 2014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베트남 국채 시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선정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Thu Thiem 경매, 외국 부동산 개발업자 유치 중

호치민 2 군의 Thu Thiem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55개의 토지 구획에 대한 경매 공지가 넓은 토지의 제공, 투명한 조건, 낮은 위험성으로 외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호치민 시 위원회에 송부된 2016 평가 계획 하 Thu Thiem 신도시 지역관련 투자 및 건설 당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약 8 헥타르의 해당 토지는 22조 동(9억 4800만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추산된다. 토지 계획과 별도로, Thu Thiem 신도시 지역에 9조 9000억 동(4억 2500만 달러)에 이르는 3,800채의 재정착 아파트 또한 분양될 계획이다.

5. 한국 기업 동향

■ BGF 리테일, 베트남에 'CU' 수출

중소 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BGF)리테일이 몽골에 이어 베트남에 진출하며 해외시장에 힘을 쏟는다. 24일 BGF리테일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BGF 본사에서 베트남 CUVN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현지 편의점(CVS)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CUVN은 베트남 유통업체인 SNB 등이 투자해 설립한 편의점 운영 업체다. 이번 계약으로 BGF리테일은 브랜드, 시스템, 노하우를 제공하고 현지 협력사가 투자와 운영을 담당한다. BGF리테일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로 약 1억명 인구 중 청년층(30세 미만)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평균 경제성장률이 6.8% 수준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가요와 드라마 등이 큰 인기를 끌고, 다양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어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BGF리테일은 한국과 몽골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활용해 '베트남형 CU'를 개발해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1호점 개장을 검토 중이다.

(More information: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818)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jiho@jplawvn.com +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